

나를 매혹시킨 클래식 한 곡

음악 에세이 집필자들이 말하는 클래식 음악체험

듣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 새는 울거나 노래하고, 애뜻한 사랑의 찬가도 더할 나위 없이 슬픈 노래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삶이 깃들인 음악은 작곡가의 손끝에서 탄생하지만, 듣는 이의 가슴속에 뿌리내릴 때 진정으로 생명을 얻는다. 음악이 있어 진정한 행복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필자는 가나다순).

부디 저를 지겨워하지 말아주세요, 브람스 선생

— 브람스의 <4번 교향곡>

김갑수 | 시인 · 방송인

머리털이 자꾸 빠지고 뽑아야 할 이가 늘고 뱃가죽은 무한정 늘어난다. 가을이 왔나 싶는데 겨울이더니 곧 봄이 온다. The Times They Are A Changin'! 변하고 바뀌고 달라진다.

세월이 흘러도 늘 똑같은 주장, 똑같은 생각을 견지한다면 그건 신념이 굳은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증거다. 취향도 마찬가지. 10년 만에 만난 사람이 여전히 그때처럼 쿠르베의 그림을 좋아한다는 등 어찌고 하면 '흠, 이 친구 그 사이 그림을 전혀 보지 않았군!' 하는 의혹이 앞선다. 세월은 가고 옛날은 남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변하고 바뀌고 달라진다.

변하고 바뀌고 달라져야만 할까? 브람스는 아무런 죄가 없지만 그 의문을 브람스에게 물올란다. 고교시절 음악감상실 '르네상스'에서 브람스 <4번 교향곡>을 듣다 평평 눈물을 쏟고 난 후 클래식 애호가가 된 건데, 목숨이 가다가다 능을 쳐 휘어드는 중년의 나이까지 여전히 브람스 4번 어찌구 한다면 좀 지겨운 일 아닐까요, 브람스 선생?

하지만 세상의 바보들은 브람스도 듣지 않고 이박사 트로트나 김건모, 지오디 그린다. 에이 불쌍한 사람들! 혼자 잘난 맛에 또 며칠 전 이스테반 케르테츠의 브람스 교향곡 전집 LP를 샀다. 같은 곡으로 근 이십종째쯤이 될 걸. 보이는 대로 사서 쌓아놓고, 그런데 듣기는 하남?

한 10년 만에 옛친구를 만나도 나는 역시 브람스 어찌구 그중에서도 <4번 교향곡> 올라차자 자동반복 테이프를 돌릴지 모른다. 더



좋은 곡은 얼마든지 있다. 다만 눈물겹게 떠오르는 마음의 고향 바로 그것. 부디 저를 지겨워하지 말아주세요, 브람스 선생...

시공의 경계 허무는 음악의 신비한 절정

— 모리스 라벨의 <볼레로>

김학민 | 오페라 · 뮤지컬 무대연출가

파리의 어느 발레 공연장. 러시아의 젊은 남자 무용수가 춤을 추고 있다. 그의 몸은 배경으로 흐르는 오케스트라 음악과 하나가 된다. 느리게 움직이는 음악과 더불어 몸이 서서히 가동을

시작하더니, 점점 그 움직임에 속도가 붙는다. 음악이 점차 빨라지며 절정으로 치닫자 그의 몸은 신들린 듯 바쁘게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내뿜는다. 춤이 끝나자 객석에선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이어지고, 잠시 후 이 무용수는 분장실로 가서 고국에 계신 어머니에게 국제전화를 건다. "엄마, 나 해냈어요!" 감격과 흥분으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무용수의 얼굴에 어느덧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린다.

15년 전 우연히 보게 된 영화 <사랑과 슬픔의 볼레로>에 나오는 이 감동적인 장면은 마치 첫사랑의 충격에 얼빠진 사람처럼 몇 달을 멍하니 살고 있던 나에게 무대 위에서 음악이 발휘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닫게 해줬다. 이것을 계기로 나는 음악이 있는 무대에 인생을 걸기로 결심했다. 오페라와 뮤지컬 무대. 무대 위의 드라마는 음악으로 시작하고 음악으로 생명력을 얻는다는 나 혼자의 진실은 이렇게 한편의 영화 속 작은 장면에서 비롯됐다.

그 후 제법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도 나는 문득 문득 이 영화 속 남자 무용수가 혼신의 힘을 다해 추던 춤사위와 그 배경으로 흐르던 오케스트라 선율을 떠올리며 새롭게 힘을 얻곤 한다. 이 영화 속 무용음악으로 사용된 곡은 라벨의 <볼레로>. 이 곡은 지리할 정도로 느린 시간의 반복과 흐름을 타고 차곡차곡 음의 축조를 이뤄간다. 마침내 만들어지는 음악의 신비한 절정은 시간 예술의 영역을 넘어 어느덧 공간과 시간이 함께 만나는 절묘한 순간을 이룬다.

훌륭한 곡은 다양한 느낌이 동시에 어우러진다. 라벨의 <볼레로>는 후기 낭만주의의 데카당스적인 농염한 색채를 바탕으로 하



고 있지만, 묘하게도 먼 옛날 원시 제식을 연상케 하는 원초적 근원성을 내포한다. 그 옛날 원시시대 제식에서 신체 움직임과 인간의 감정이 채 분리되지 않은 음악의 신선한 모습이 세기말적 퇴폐성과 한데 만나는 재미. 이것이 <블레로>를 듣는 재미다.

음악적 상상은 시각을 뛰어넘을 수 있다

— 슈베르트의 <죽음과 소녀>

윤광준 | 사진 프리랜서 · 저술가

현악 사중주는 클래식 음악이 될지 아는 사람들이 듣는 장르라던가? 나도 그랬던 것 같다. 클래식 음악에 심취할수록 현악 사중주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바이올린 두대와 비올라 그리고 첼로. 단



네대의 악기가 만들어내는 조화와 긴장에 도취되는 순간은 서양 음악의 정수를 맛보는 듯한 느낌이라 말해도 좋지 않을까. 문화의 발전형태는 단순한 것에서 복잡하게 그리고 다시 단순화되는 과정을 반복한다. 음악 역시 이런 사이클을 거치며 인간의 감각적 풍요로움을 더해준다.

거장들의 많은 현악 사중주곡 가운데 나는 슈베르트의 <죽음과 소녀>를 오랫동안 즐겨 듣고 있다. 슈베르트는 모두 15곡의 현악 사중주곡을 작곡했다. 그 가운데 이 현악 사중주 제14번 <죽음과 소녀>를 최고 걸작으로 치는 이가 많다.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가 심오한 인생과 고뇌의 정화를 담았다면 슈베르트는 낭만적인 요소가 짙은 개인적 감수성을 펼치고 있다. 익숙하게 들던 그의 가곡에서 받았던 느낌과 비슷한 감상을 준다.

'죽음과 소녀'라는 부제가 붙은 이유는 제2악장에서 슈베르트 자신이 쓴 <죽음과 소녀>라는 가곡의 반주부분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시인 마티아스 클라우디우스의 시에 곡을 붙인 이 음악은 죽음에 다다른 소녀와 그녀의 생명을 거둬가려는 저승사자와의 대화로 이뤄져 있다.

"나는 아직 어려요. 그냥 지나가주세요."

"나는 친구란다. 괴롭히려 온 것이 아니야. 내 팔 안에서 꿈결같이 편히 잠들 수 있단다."

이 곡은 모든 악장이 단조로 씌어져 있다. 죽음을 소재로 한 곡이니 분위기가 어둡고 무거운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이 곡은 소녀와 저승사자와의 힘겨운 투쟁을 긴장감 넘치는 영화처럼 전개하고 있다. 음악을 들으면서 복원되는 상상의 이미지는 인식체계를 넘은 크기로 확대돼 머릿속을 꽉 채운다. 음악적 상상이 시각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체험케 해준 <죽음과 소녀>를 나는 가끔 크게 틀어놓고 듣는다. 이 순간 나는 소녀가 혹시 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내게도 죽음은 먼 것이 아니라는 자각 때문이리라.

아픔을 포근히 감싸주는 '참 평화'의 선율

— 비발디의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최영욱 | 음악칼럼니스트

처음에 그 곡은 그저 내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 가운데 하나였다. 좋아하는, 또는 특별한 클래식 음악을 꼽아보라는 게 가장 난감한 일인 나로서는 당연한 일. 대체 하나같이 두루두루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어떻게 몇 개만 콕 집어 얘기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내게 그냥 스치고 지나가기엔 남다른 의미로 다가온 음악이 최근 하나 있다. 어느 음악 강의 중에 있었던 일이다. 비발디를 얘기하면서 그의 대표작인 <사계> 말고도 이런 음악이 있으니 들어보라고 음악을 들었다. 마침 <사인>이라는 영화에도 삽입됐던 곡이라 '아, 이 곡!' 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많았다.

음악에 몰입하기 위해 볼도 꺼놓고 청아한 소프라노의 선율이 한창 날아오르고 있는데, 문득 뒷좌석의 K가 고개를 푹 수그린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눈가에 손이 자주 가는 걸로 봐서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음악감상 강의를 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종종 봐와 놀랄 일은 아니지만, 그 주인공이 K라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K는 처음 내 강의에 들어온 후 한 학기가 다 가도록 한마디도 하지 않던 이였다.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 역시 전혀 없었고 언제나 싸늘한 얼굴로 뒷좌석에 앉아 있다 조용히 사라졌지만 단 하루도 결석하지 않는 묘한 모범생이기도 해 늘 눈길이 가곤 했다.

어딜 가든 밝게 웃고 있는 사람보다는 어딘가 '아파' 보이는 얼굴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K도 그런 경우라 내 눈길을 끌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찌해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그저 묵묵히 마음으로 응원하는 수밖에...

며칠 후 K는 메일을 보내왔다. 그로선 처음으로 입을 연 셈이다. 왜 자신이 그토록 차가운 얼굴인지 털어놓으며 왜 그 음악이 자신을 울렸는지, 그리고 그 음악을 통해 얻게 된 마음의 평화를 얘기한 K의 긴 메일을 읽으며 얼마나 가슴이 아릿했는지.

K의 마음을 무장해제했던 음악. 그것이 바로 안토니오 비발디의 세속 칸타타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다. '아픔이 없다면, 세상엔 참 평화 없어라'로 시작하는 이 곡이 어찌해서 K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는지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이 음악은 그렇게 해서 내게도 특별한 것으로 남는다. 아름다운 세상에 아름다운 일만 있으면 좋으련만... 그러나 이 따스하게 어루만져주는 선율로 잠시나마 사람들은 평화를 얻지 않을까.